

# “깨끗한 하수처리에 만전”

### 남원시, 지방공기업 하수도분야 최우수 선정 위한 업무 추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분야에서 2015~2016년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남원시는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분야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4개 지표 총 22개 항목에 따라 사업성과, 경영실적, 목표달성도 등을 점수화한 평가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가' 등급에서 '마' 등급까지 5단계로 평가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공기업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원시 하수도는 2016년도 평가에서 전라북도 1위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평가항목 중 경영개선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및 전문성 및 경영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리더십 분야에서는 박병수 환경사업소장의

의 시민 서비스 행정을 최우선 하는 등 행정 능력을 발휘하여 평점 100점을 득점하였다.

다만, 남원시 하수도의 경우 2015년도에 하수도요금인상을 추진하였지만, 하수도보급을 위한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등 투자 사업비의 증가로 총괄원가가 증가하여, 타 시·군에 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경영효율성과 지표결과가 낮은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남원시는 2017년 현재 요금현실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원가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도요금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 환경사업소는 이번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2017년도 하수도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전문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경영목표 이해도와 경영개선에 참여도를 높이고, 하수도요금 현실화,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추진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깨끗한 하수처리 및 하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에코바이오영농조합법인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아, 남원시의 자연순환농업의 우수성을 또 한 번 인정받게 되었다.

## 남원시, 자원순환농업 우수성 입증

### 에코바이오영농조합법인, 대통령 표창 영예

남원시는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공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남원시와 남원자원순환농업협회의 노력이 운봉공동자원화 사업장을 운영하는 에코바이오영농조합법인의 이영수 대표의 축산 선진화로 반영되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아, 남원시의 자연순환농업의 우수성을 또 한 번 인정받게 되었다.

2009년에 설립된 에코바이오영농조합법인은 남원 관내(운봉, 아영, 인월, 산내)의 17개 축산농장(양돈)에서 발

생되는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미생물을 통한 호기성발효과정을 거쳐 액상 비료를 생산, 농경지에 살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축산농가(양돈)에 연간 약 2억원의 분뇨처리비와 경종농가에 약 5억원의 비료값 등 7억원 상당의 농가경영비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대표인 이영수 씨는 농림수산식품부 자문위원회인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과 (사)자연순환농업협회 2, 3, 4대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가축분뇨자원화 전문가 토론회와 (재)축산환경관리원의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남원시 자원순환농업의 발전모형을 적극적으로 알린으로써 남원시 우수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영수 대표는 "이 상은 에코바이오영농조합법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 자원순환농업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또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합니다."라고 대통령 표창의 수상 소감을 밝히며, 남원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화학비료 대체 사용으로 경종·축산농가 상생체제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결의를 보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의회, 새 해 첫 임시회 개최

24일까지 8일간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의사운영의 첫 장을 여는 이번 임시회는 실과원소의 주요 현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군정 전반의 밑그림을 그리는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문영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마련한 도약의 발판을 주춧돌 삼아 정유년 새해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새 임실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쳐내는 선진 군정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실과원소 주요업무계획 부서별 보고 일정은 ▲17일 :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18일 : 문화

관광진흥과, 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19일 :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 곳곳 나눔 릴레이 이어져

### 대한한돈협회 임실지부 한돈 400kg 기탁 등

정유년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져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16일 정용면 양지리 김현규(69세)씨는 설 명절을 맞아 불우이웃과 경로당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0포(20kg)를 정용면사무소에 전달했다.

김현규씨는 "이웃들이 설 명절에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대한한돈협회 임실지부(지부장 김성두)는 17일 지정기탁 물품 한돈 400kg(350만원상당)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임실군에 기탁했다.

한돈협회 임실지부는 명절과 등절기에 400kg가량의 한돈을 지속적으로 기탁하고 있어 나눔 실천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심민 군수는 "개인과 단체가 나눔 사랑 실천에 선도적으로 동참해 정말 고맙다"며 "기탁자들의 뜻에 따라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작고 적은 기부물품이라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질 것"이라며 "기관사회단체 및 개인의 나눔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눔활동 관련 문의는 군청 희망복지팀(☎640~2082)으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57억 투자 친환경 농업경쟁력 강화

순창군이 올해 친환경농업 관련 4개 분야 54개 사업에 57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농업경쟁력을 확 높인다.

군은 친환경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확대 4개 사업에 2억 1,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 소비활성화 6개 사업에 7억 4,000만원, 친환경농업인 소득안정 지원사업 4개 사업에 18억 9,000만원, 농업토양 환경보전지원사업에 28억 1,000여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순창군이 올해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유기농업특구 지정을 위한 여건 조성이다.

지역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설정해 선택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 순창군은 금과면 일대를 유기농특구로 지정해 친환경기반을 집적화 하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공동브랜드를 통한 유통망 확대를 통해 순창농업의 경쟁력을 대폭 높이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2020년까지 유기농특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우선 올해 유기농업 특구 지정을 위해 친환경 인증면적을

지난해 1,256ha 보다 290ha 증가한 1,546ha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인증면적이다.

또 올해 사업추진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유통 소비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장려금과 친환경 쌀소비 장려금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

또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물류비 지원과 소비자 체험활동 및 판촉행사도 진행한다. 농업인들이 주축이 된 유통조직 육성과 친환경 급식을 겨냥한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도 추진해 순창 친환경농산물의 전국 유통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520ha 범위에 친환경농업 지원금 지원과 1,000ha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급, 초기 진입 확대를 위한 인증비용 400건 지원의 사업도 추진한다.

또 친환경농업도양 환경보전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새끼 우렁이 지원, 녹비작물 시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군은 친환경농업경쟁력 강화로 제값받는 삼라농정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고창군, 설 연휴 기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고창군(군수 박우경)이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진료와 군민의 의료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일자별로 당직의료 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하고 고창군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560-8773)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고창병원은 설 연휴기간에도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5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9개소 등 총 14개소를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기관 34개소와 함께 일자별로 지정된 근무일에 비상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약품 구입을 위한 휴일지킴이약국은 지역 내 약국 11개소에 대해 지정·운영해 의약품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보건소 비상진료대책상황

실을 통해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안내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최소화한다.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이나 약국방문이 어렵거나 가벼운 증상일 경우는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가지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은 응급의료정보센터(전화 국번없이 129 또는 119)이용시 실시간 의료정보 제공되며 인터넷 고창군홈페이지(www.gochang.go.kr) 배너 및 공지사항 또는 고창군 비상진료대책상황실(보건소) ☎ 560-8773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민들이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마을변호사 역할 '특독'

임실군이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지역민의 법률 고민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마을변호사'가 법률 수호천사 역할을 특독히 하고 있다.

생활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 10월 첫 상담을 시작한 '마을 변호사'는 주민들이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심민 군수는 "법률 고민을 해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된 군민이 없도록 설 명절을 맞아 집중 홍보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 변호사'는 매월 세 번째 월요일에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청 감사법무팀(☎640-2055) 또는 각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농협 고창군지부, 닭고기 축진 캠페인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지부장 윤종기)는 17일 고창군청 앞, 고창 공공버스터미널 등에서 닭고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산 닭고기로 만든 제품과 홍보전단을 농협은행 이용고객과 군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축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AI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실시했다.

윤종기 지부장은 "최근 AI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닭고기 가공품을 홍보용품으로 활용하는 행사를 마련하였다"면서, "현재 농협중앙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AI확산방지와 피해농가 금융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경찰, 어르신 겨울안전 홍보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순화과출소(소장 박인규)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시외버스터미널 등 대중운집장소에 직접 찾아가 "어르신 대상 겨울철 안전 홍보 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에 밝은 옷 입기, 오토바이 운행 시 안전모 착용하기, 음주 후 오토바이나 농기계 운전하지 않기 등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엇인지 설명하며 경찰이 법원이라고 하면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처요령 등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설명절 전후 날치기, 소매치기, 빈집털이 예방요령과 가급적 집에 있는 현금 및 귀금속을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인규 순화과출소장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만큼 어르신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설 명절 전후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시적인 예방 활동으로 강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하고 따뜻한 순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